

직무복귀후 첫 국무회의 - 노사정 대타협에 관해

지금 우리 사회에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, 특히 올해는 노사 문제가 중요하나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. 합의를 이루거나 적어도 합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재계든 노동계든 설득할 수 없고 국민적 동의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. 노사정 대타협이 올해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.

노사 양자간에 타협과 조정이 안 되면 정부가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협 조정안을 만들어서 양쪽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. 범정부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별히 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.

(사회적 합의 관련) 이제는 명령의 시대에서 합의의 시대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으며,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.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추진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끊임 없이 생각을 공유하려는 노력을 선행하지 않으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, 다양한 토론과 정보공유를 통해 서로 인식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야 사회적 합의,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국무위원들은 정부혁신과 정책의 품질관리에 힘을 쏟아주기를 바랍니다.

정책과 행정의 품질을 높이고 대국민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병행하는 것이 올해 정책품질관리의 중요한 핵심 목표입니다.